

주일가정예배

2023년 8월 27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28~29)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흠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여기 모인 성도들이 치유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늘에 속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99장 다같이

1.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2.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3.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후 령)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8:40-42, 49-56 인도자

-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 41.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 51.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53.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 56. 그 부모가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설 교 『 두려워 말고 믿으라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고 】

- 1.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용케 하옵소서.
- 2.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 3. 기도의 은혜와 전도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두려워 말고 믿으라

누가복음 8:40-42, 49-56

외출도 두렵고 사업도 두렵고 결혼도 두렵고 출산도 두렵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지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엄습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욘 3:25).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은 상승하고, 위액 분비가 잘 안되어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 그럴 때는 무서워하거나 근심되는 것을 기록해 보라. 대부분 근거가 없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많아진다. ▶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예수님을 반겼다. 그중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 학식, 지위, 존경, 명예, 재산 등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전도 대상자 중 돈 많고, 지식 많고, 지위 높은 분들은 전도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고, 급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 이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나올 날이 있다. 그냥 씨를 뿌려 놓으라. 인간은 한계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그의 외동딸 때문이다. 아파 죽게 되었기에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41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권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게 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다. 일종의 새치기다. 죽을병도 아닌데 말이다. 그 여인으로 인해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집에서 급한 기별이 왔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본다. 야이로의 가족들도 야이로의 발걸음을 방해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50절). 회당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집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사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까지 역사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의 영역에서도 살려 내시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죽음 너머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야이로 가정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주님에게 여전히 야이로의 딸은 살아 있는 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되 ‘두려움’에 대한 반대말로 제시하셨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다. 두려움은 낙심을 낳는다. 한계 상황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 물론 야이로의 믿음의 여정은 만만하지 않겠지만. ▶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대동하고 방에 들어가셨다. 주변에서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즉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상적인 아람어는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다정한 말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죽으면 영이 떠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 육체와 분리되어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 치유의 완벽함을 보이시고자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다. 예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그 권능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도 행하신다.